

Dragor SA

September 2011

Emerging Market Daily*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루과이 정부의 노력

September 15, 2011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루과이 정부의 노력

이선원 (Dragor SA 대표이사)¹⁾

지금 전 세계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의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고 있다. 작년 그리스에서부터 촉발된 유럽 발 재정위기는 어느새 포르투갈을 지나서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8월 6일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국채)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더블 A플러스(AA+)로 한 단계 하락시켰다. 그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 있는 주요 국가 등의 증시가 폭락을 하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석유 가격도 폭락을 하였다. 이런 세계의 경제 위기 앞에 남미에 위치한 우루과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우루과이 페소의 하락 및 국가 위험도의 상승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달러에 대한 우루과이 페소는 8월 8일 하루만에 2.2%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1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이고 세계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절하되었던 달러가 단숨에 달러당 19페소를 뛰어넘어 평균 \$19.027 페소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IRUBEVSA' 수치도 23포인트 상승한 215포인트로 10% 넘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오자 우루과이 투자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루과이 주식 시장(Bolsa de Valores de Montevideo)에서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투자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미래에 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1) Dragor SA 대표자 이선원은 2000년 우루과이로 이민하여 연합뉴스, YTN, 경향신문 남미통신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지회 지회장, KOTRA 세계오지지역 명예투자자문관, INKE(글로벌벤처네트워크)의 몬테비데오 지부 의장을 역임하고 있음.

이에 대해 우루과이 지역 신문 엘 파이스(El pais)의 마틴 페레라(Martin Perera) 기자는 우루과이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자금을 되찾길 원한다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 충고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더 성장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시점에 재정적인 악순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마트(Wal Mart),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투자를 해 보라고 오히려 권유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시장 안정 노력

호세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즉각 발언을 하고 나섰다. 우선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이번 세계 경제위기로 우루과이가 지난 2002년에 겪었던 최악의 경제위기 사태를 다시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동요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서 현재 라틴 아메리카는 콜롬비아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남쪽 끝까지 수많은 공장들이 잘 가동되어가고 있고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위기가 남미지역까지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남미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이번 경제 위기를 잘 견뎌낼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 이외에도 무히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저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저축을 통해 국제적인 위기에 대한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너무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필요치 않은 빚을 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히카 대통령은 몬테비데오 시청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각 장관들에게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세금이니 만큼 정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우루과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만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다른 관료들의 시장 안정 노력

로베르토 크레이메르만(Roberto Kreimerman) 우루과이 산업부 장관도 한 행사에서 우루과이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이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루과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우수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상 이번 미국에서 발발된 경제 위기를 피할 수 가 없는 만큼 이탈리아, 그리스, 혹은 미국처럼 우루과이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기업,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 우루과이 부통령도 이런 발언에 동참했다. 아스토리 부통령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루과이 경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비록 환율이나 이자율 등 실물 지표는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이번 경제 위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2013년까지 우루과이의 유동 자금은 풍부하고 적절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장의 전망

하지만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긍정적인 발언들과는 달리 시장의 전문가들은 선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우루과이 내부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발하여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루과이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고 설사 어떤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 참고 자료 >

EL PAIS

EL OBERVADOR

ULTIMAS NOTICIAS